

## 紅蔘 内白部의 水蔘 微細構造

趙炳九·朴 薫·李峻星\*

韓國人蔘煙草研究院, \*農業技術研究所

(1994년 10월 4일 접수)

## Ultrastructure of Fresh Root Turned into Inside White of Red Ginseng

Byung-Goo Cho, Hoon Park and Jun Seong Lee\*

Korea Ginseng and Tobacco Research Institute, Taejon 305-345, Korea

\*Agricultural Sciences Institute, Suwon, Korea

(Received October 4, 1994)

**Abstract** The pith and xylem parts of fresh root that turned into inside-white during processing for red ginseng was investigated unde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n comparison with the same position of fresh root processed into normal reddening. In the inside-white part starch storage cells remain mostly in vacancy or with small number of starch granules and with large hollow by missing cell membranes between cells. Many starch seed granules appeared on the surface of storage cell wall in the inside-white part. Fresh root sample showed better picture than dried powder.

**Key words** Inside white, fresh ginseng, electron microscopy, starch granule, cell membrane.

### 序　論

일반적으로 식품제조 과정의 연구들에서 조직의 변화 연구가 소홀한 것과 같이 人蔘가공에 있어서도 그려하여 内白部位에 관한 組織學的 연구보고는 둘어 봤에 불과하다. 内白部位에 대한 光學顯微鏡 조사에서는 人蔘세포의 배열상태가 치밀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며<sup>1)</sup> 電磁顯微鏡에서는 호화 진분과의 수가 원통적이고 진분과의 크기도 적었으며 진분을 차장하는 세포벽이 얇다고 하였다.<sup>2)</sup> 이상의 연구는 紅蔘을 제조한 후의 시료이며 水蔘의 상태는 아니다. 水蔘의 상태에서는 内白이 된 소실(内白性)을 連X線에 의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구분할 수 있으나<sup>3)</sup> 확실하게는 못하므로 内白부위의 水蔘조선에서 조사를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본 연구는 正常 및 内白의 水蔘에 대한 微細構造을 비교한 것이다.

### 材料 및 方法

### 1. 水蔘試料

收納水蔘(6년근, 농가포장, 9월)을 여러개 구입하여 水洗한 후 통체를 세로로 이동분하여 표시하여 한쪽은 4℃에 보관하고 다른 한쪽은 紅蔘을 제조하였다. 内白이 발생한 그 째의 水蔘에서 内白 水蔘試料를 内白부위 정도를 감안하여 채취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위에서 正常 水蔘시료를 채취하였다. 선조사 모두는 여러 개의 뿌리에서 채취한 시료를 종합하여 55℃에서 김조한 후 분쇄하여 100 mesh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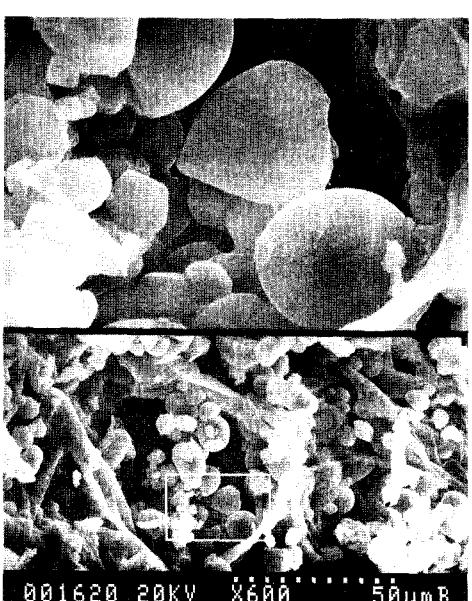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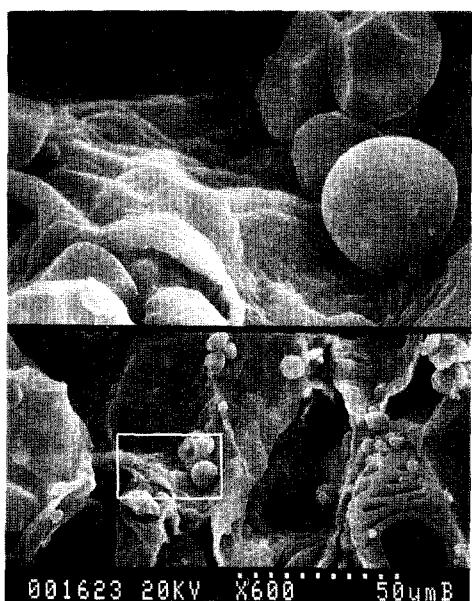
### 2. 走査電磁顯微鏡 시료조제

O'Brien과 McCully 방법에 준하여 진보<sup>4)</sup>에 시와 같이 처리하였으며 Hitachi 세로 촬영하였다.

### 結果 및 考察

Fig. 1은 정상水蔘과 内白水蔘을 전자顯微鏡으로 400배 확대한 것이다.

정상水蔘(Fig. 1-1)은 진분과의 수가 많아서 세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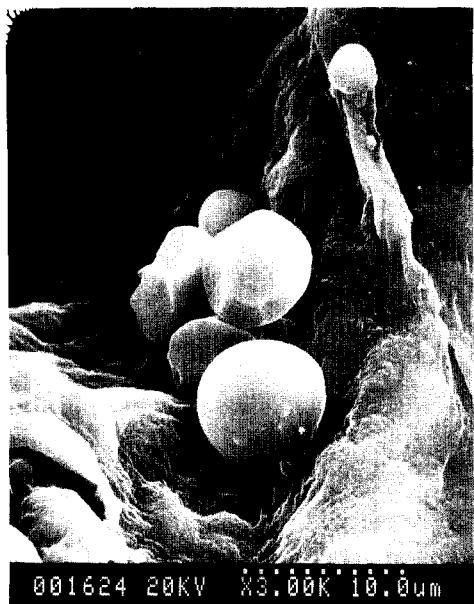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normal (Fig. 1-1, 1619) and inside-white (Fig. 1-2, 1962) part of fresh *Panax ginseng* ( $\times 400$ ).

구분하기 어려우나 内白水蔘(Fig. 1-2)은 진분령의 수가 적어서 대부분의 진분 자장세포가 냉 미어있고 세포의 벽이 공통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세포와 세포사이의 미어 없어진 곳이 많아 진 흡과 같은 공동이 보이고 있다. Fig. 2는 다른 시료의 600배와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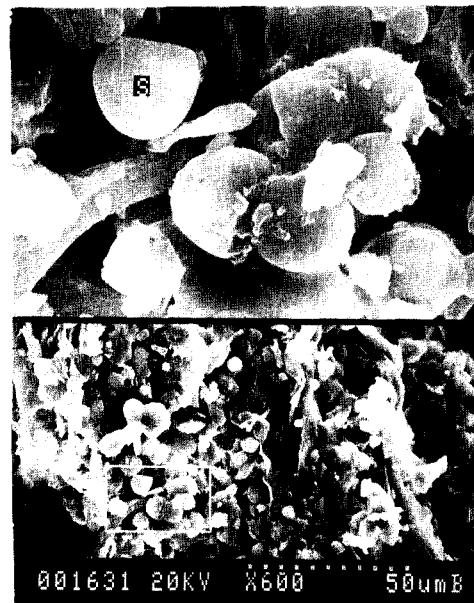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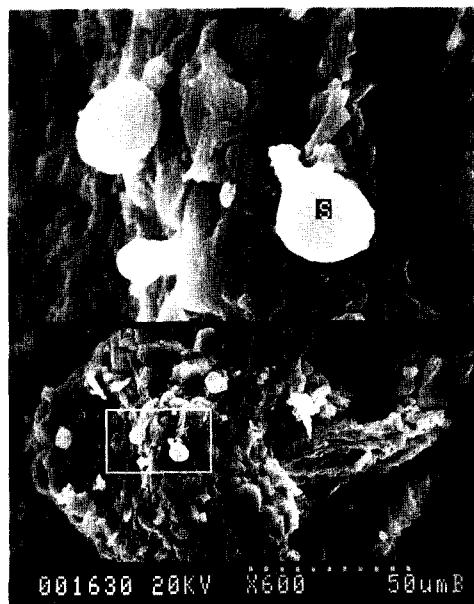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normal (Fig. 2-1, 1620) and inside-white (Fig. 2-2, 1963) part of fresh *Panax ginseng* (lower  $\times 600$ , upper  $\times 3,000$ ).

배의 사진이다. 여기서도 内白水蔘은 600배에서 진분령 수가 적어 공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000 배에서는 内白水蔘의 진분령이 바깥으로 물증침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600배에서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inside-white part (1624:  $\times 3,000$ , 1625:  $\times 8,000$ ).

진분리의 크기가 상상 水參에서(Fig. 2-1)는 月白水參에서(Fig. 2-2)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과 일치한다. Fig. 2-2에서 上部 일부 대포형 부분을 자세히 본 것은 Fig. 3의 上과 같다. 진분리는 크기별로 크게 차이가 나서 아주 작은 진분은 씨앗에서부터 떠내 뿐 아니라 그늘을 것으로 보인다. 内白參은 8,000배로 보면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normal (1631) and inside-white (1630) part of dried powder of fresh *Panax ginseng* (lower:  $\times 600$ , upper:  $\times 3,000$ ).

(Fig. 3의 下) 진분 서장면에 무수한 작은 珠體가隆起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진분구가 자마를 부위로서 광합성 진분이 차이 대 차라지 끗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内白水參에서 진분 향량이 적고 수용성이

백질이 적은 것은<sup>4)</sup> 여기에서 본 것과 같은 전분립 수의 현격한 감소, 전분립이 적은 현상 그리고 저장 세포의 세포벽 손실 등과 일치한다. 고온장해에 의한 광합성 저하와 호흡상승에 의한 소모의 증가 그리고 수분부족과 광도부족에 의한 광합성 장해와 부분적으로 질소영향 장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료처리상의 편리를 위하여 분말 시료의 경우를 검토한 것은 Fig. 4와 같다. 전분의 수와 크기 그리고 공동의 크기 등에 있어서는 正常(下) 内白(上)간의 비교에서 水蔘의 경우와 유사하나 건조에 의한 수축 과정에서의 변화 때문인지 세포간의 구별이 모호하며 水蔘(Fig. 2)에 비해 전분립의 크기도 적은 것 같다. 전분립의 크기는 3,000배와의 비교에서 뚜렷하다. 조직상태를 관찰함에는 분말시료보다 水蔘상태 시료에서 분명한 관찰이 가능하였다.

### 要 約

正常 水蔘과 内白水蔘의 구조를 走査電磁顯微鏡으로

관찰(400~8,000배) 하였다. 内白水蔘은 세포내에 전분이 없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전분립의 크기도 적었다. 또한 세포사이의 벽이 없어져서 길게 공동을 이루고 세포의 깊은곳 까지 들여다 보였다. 내백부는 전분립은 세포의 벽에서 소형 구형으로 자라나며 内白은 초기 씨알상태에 머문 것이 많은 것 같다. 水蔘시료가 건조분·말시료보다 조직차이가 설명하였다.

### 引 用 文 獻

1. 도재호, 김상단, 성희순: 고려인삼학회지, 9(2), 256 (1985).
2. 박훈, 조병구, 이준성: 고려인삼학회지, 12(2), 153 (1988).
3. 박훈, 조병구, 이미경: 고려인삼학회지, 8(2), 167 (1984).
4. 박훈, 이명구, 윤종혁, 이미경, 조병구, 이종률: 인삼 연구보고서(제4회), 한국인삼연초연구소, p. 1 (1987).